

27. 지독한 농사꾼을 만나 정체성을 바꿔버린 매꼬지 상추

상추,

남아 있는 나의 상추에 대한 기억은 어릴 때뿐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여름이다. 특히 늦장마철에 더욱 그 기억이 특별하다. 어머니는 여름철에 반찬 없는 밥상을 꾸밈하게 하는 법을 알고 계셨다. 밥상 위에 커다란 사기그릇에 보리밥 한 그릇, 그리고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은 막장에 고추장을 섞어 만든 논적거리는 양념장, 그리고 소쿠리에 가득한 상추쌈이 전부였지만, 매우 꾸밈했다. 막 썬 상추에는 물기가 자르르 윤기를 내고 상추 꾀다리에는 흰 진물이 쏙 튀어나왔다. 우리는 이 물기가 가득한 상추를 한 개 들고 한지를 바른 방문에 휘익 뿌린다. 그러면 마치 비 오듯이 후드득 하며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 비로소 이 소리를 들으면 먹기도 전에 입 안에 침이 고인다. 이렇게 소리까지 한몫하는 게 상추다. 먼저 침을 꿀떡 삼키고는 막장을 한 손가락 떠올리고 보리밥을 더 크게 올려 입안 가득히 집어넣어 우적우적 씹으면 짭짤한 고소함이 퍼지고, 나는 비로소 여름이 가는가보다 실감한다. 이것이 상추에 대한 나의 추억이다. 긴 장마에 살아남은 상추가 있다면 말이다.

상추는 여름 장마를 견디기가 아주 힘들다. 잎이 연해 특히 습기에 약하고 쉽게 썩는다. 대부분의 상추는 장마가 끝나면 썩어서 까만 흔적만 줄기를 감고 있다. 그런데 여름 장마에도 썩지 않고 가을 추대가 강한 상추가 있었다. 바로 매꼬지 상추다. '있었다'라고 한 것은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상추가 육종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전까지 상추는 다른 품종에 비해 육종이 진행되지 않아 그나마 지방 재래종이 곳곳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 안동 꽃상추가 그랬고, 은평 오그리기 상추, 개성 꽃상추 등이 그랬다. 특히 논산의 매꼬지 상추는 농가와 상인, 소비자가 모두 선호해 그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육종이 본격화되자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명세만 남기고 대부분 없어졌다. 그것은 매꼬지 상추도 마찬가지였지만, 매꼬지 상추는 좀 다른 경로를 겪는다. 그나마 제일 오랫동안 농가의 사랑을 받으며 심어온 것이 매꼬지 상추였다.

상추씨는 남아있으려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없어진 것이 안타까워 얘기라도 듣자고 찾은 논산 매화마을, 그래서 겨울이 다 갈 무렵 마을을 찾았다.

마침 마을회관에는 어른들이 많이 나와 계셨다. 언제부터인가 수집을 나갈 때마다 마을에 들어서면 마을회관을 찾는다. 이상한 것이 농가를 찾거나 지나는 농민에게 씨앗 수집하러 나왔다고 하면 웬지 모를 경계가 사뭇 느껴지는데, 마을회관에 가면 아주 너그러워진다. 그곳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마실 집단의 뒷배가 있어서일까. 뒷배를 가진 자의 너그러움과 관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마을회관이다.

- 매꼬지 상추 찾으러 와쥬.

말끝이 이어지기도 전에 고스톱판에서 한 분이 벌떡 일어난다. 충청도에서는 충청도 말이 친교를 늘릴 수 있다. 믿음은 사투리가 찢힐수록 더 커진다. 첫 만남의 몇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 어, 지대로 찾았구먼. 잘 왔네. 그라, 뭘 알고 싶은디?

우선 각종 매체나 연구자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매꼬지 상추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 분들의 생존 소식을 물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대부분 살아 계셨다. 그런데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그분들을 찾아 인터뷰하겠다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분의 기세가 당당하고 떳떳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 어, 거기 갈 것 읍유. 이 양반이 다 아릉께.

그렇게 해서 뽑혀 나오신 분이 바로 매꼬지 상추라는 이름을 명명하고, 상품화에 앞장섰던 당시 작목반장이었다. 지금도 이장을 보고 계신 김재금 선생이었다.

매꼬지 상추가 마을에 들어온 과정은 이 동네 사는 이필재 씨라는 분의 어머니가 7.80년 전에 시집간 따님네 동네에서 제일 먼저 들여왔다는 것이 정설로 알려진 바였다.

- 뭘 소리여? 장난하나? 그건 첨 듣는 얘긴디. 생각해 봐. 그렇다면 매꼬지 상추가 왜 매꼬지 상추 것어? 그 동네 상추지. 매꼬지는 여기가 유일하.”

- 그건 그 사람 얘기고….

- 맞아. 그 얘긴 이장 얘기가 맞네.

내가 알고 간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을 바꿀까 봐 이장님이 숨 가쁘게 얘기를 이어갔다.

- 모르는 소리여. 첨부터 매꼬지가 들어왔겠어? 그건 우리가 땀근 거여. 우리 집에서 좋은 거 골라 심다가 남을 주고, 남이 좋은 것을 골라 심다가 우리 주고…. 그러다 보니 왔다 갔다 좋은 것만 남은 거. 지가 들여왔다는 건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여. 그래서 억울한 거지. 우리가 땀근 걸 뺏겨 버렸으니. 하긴 우리가 버린 거지만….

사실 그날 처음부터 회관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온 말들은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와 제 발등을 찍었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누군가 한 소리 한다. 그 말이 그들을 진정시켰다.

- 그러도 그건 선물 아니었남? 안 그러?

선물, 그럴지도 모른다.

여름만 되면 농가와 상추의 전쟁이 벌어진다. 이 약한 상추 따위가 인간과 전쟁이라니! 언뜻 생각하면 식물과 농가는 공생관계 같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단번에 꺾어 보리라 맘먹는다지만, 만만치 않다는 걸 한 해만 지나면 알 수 있다.

상추의 입장에서선 빨리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이 우선이고 그들의 세계에선 장마가 오기 전에 이를 예측하고 고동을 빨리 올리는 것이 우수종이다. 그러나 농가의 입장에서선 고동은 나오지 않고 가급적 늦게 꽃을 피워 잎을 따 먹을 게 많을수록 좋다. 그러다 보니 상추는 꽃을 빨리 피우려고 발버둥 친다. 기회만 닿으면 대공을 내밀고 꽃봉오리를 만들어 버린다. 반면에 농가는 농가대로 가급적 꽃이 늦게 피게끔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안간힘을 쓴다. 차광막도 치고, 온도를 낮춰보는 등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자는 늘 상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둥, 자연을 정복한다는 둥 떠벌리지만, 자연에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포기를 한다? 인간의 식욕에 대한 인내심은 참으로 대단하다. 결국 농가가 피라고 내놓은 것이 일찍 고동을 내미는 놈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식물 입장에서선 무너지 종자인 늦게 피는 놈만 우대하며 씨앗을 받는다. 그렇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이어왔을지도 모른다. 상추 하나 이기기 위해 수천 년이나 걸렸다. 뜨거운 여름에 상추 맛이 제일이라는 것을 안 인간의 기대는 결국 우수종을 이어가려던 식물의 기대와 목표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종을 찾았다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참으로 지루한 승리다. 결국 상추의 입장에서 보면 우수종은 사라지고, 인간이 우대한 무너지가 우세 종이 되어 농가를 만족시킨다.

그러나 어쨌든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종자를 번식시킨 것이니 무리하지 않고 대세를 따를 수밖에. 이것이 매꼬지 상추의 재래 고정 종이 된 과정이다. 매꼬지 상추 연구자들에 의하면 매

고지 상추가 농가 육종되기 시작한 것은 외래 상추가 도입되기 시작한 1900년대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아무도 눈치 못 챘지만, 그렇게 선물처럼 그들에게 왔다. 이때까지는 선물이었다. 그러나 누구의 승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패자가 됐다.

그러다가 매화마을 상추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은 70년대 말 즈음이었다. 첫 선물의 시작이었다. 아마 변이종이 고정 종으로 바뀌면서 7, 80년은 된 듯싶다. 그리고 보면 첫 인터뷰한 사실에 신빙성도 간다.

김 선생이 논산으로 경운기를 끌고 두어 시간 걸려 장거리를 싣고 나갈 때 그 속에 상추도 있었다. 그해는 상추 풍년이라 먹고 남은 것이 유독 많았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한다.

- 새벽이면 마누라를 뒤에 싣고 나갔지. 처음에는 다른 장사 집에 섞어나갔는데, 사 먹은 사람들이 요 상추만 찾는 거. 요게 시작이었지. 요 상추가 싹싹한 게 예전에 먹어봤던 상추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요게 딱 그 맛이거든. 찐 맛이지. 그러니까 자꾸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결국 우리 장집의 전부가 상추 아니가 베.

김 선생 말대로 생각지 않게 제법 쓸쓸하게 잘 팔렸다. 점점 맛이 있다는 소문도 나기 시작하면서 일명 떼서 되파는 장돌뱅이 아주머니들 속에서는 제법 인기가 좋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장돌뱅이 아주머니들에게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여름 장마가 깊은 데도 그의 경운기에는 항상 상추가 실려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추를 받기 위해 경쟁했다. 당연히 값이 뛰었고, 김 선생은 마을 상추가 장마에도 유일하게 고동이 나오지 않아 살아남는다는 것을 뒤통에 알게 되었다. 아니 다른 상추들은 장마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놀라웠지만 진정했고, 긴장됐지만 침착했다. 장에 나가는 일을 중단하고 먹기 위해 심은 마을의 상추들을 모았다. 대전으로 나갔다. 상인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감추고 값을 조금만 올리고 상품만 더 요구했다. 그렇지만 주머니 안의 송곳을 감출 수는 없는 법, 그들의 상추는 금세 소문이 나 다른 상인들이 탐을 내면서 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추란 매화마을 상추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그때부터 우리 상추가 특수하다는 걸 알았지. 근디 한 가지 더 있어. 어느 해 장마가 졌는다. 여름 상추는 장마와 추대가 제일 무섭거든. 장마는 썩음 병을 몰도 오고, 추대는 딸만하면 꽃대궁이 올라와 끝나거든. 추대는 강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해 장마가 대단했는데 다른 지역은 썩음병으로 싹 슬었는데 요것은 뽕뽕한 거. 고때 알았지.

이듬해부터 이 유일함의 가치에 그들은 더 침착했다. 사실은 생산보다는 씨앗 지킴의 성격이 더 강했던 작목반을 구성하고 어떻게 종자를 지킬 것인가를 상의했다.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모든 방법을 다 썼다. 종자 등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벽이었다. 종자 관리법에 막힌 것이다. 농가 육종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것은 대평 벼들무의 경우가 비슷했다. 그들은 그저 상표 의장등록을 한 것이 전부였다. 이때 붙인 이름이 바로 매꼬지 상추였다. 마을 이름이 매화마을이었고, 사람들은 매꼬지 마을이라 불렀다. 재미있는 것은 상추가 첫 잎이 나며 차례차례 잎사귀를 젖혀 겹치기 시작하면 마치 매화가 피는 듯한 모습이 닮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종자는 상표로는 지킬 수 없었다. 이 상품 등록은 오히려 세상에 더 알리는 꼴이 돼 버렸다.

여기에서 그들의 얘기대로 전하면 기막힐 일이 벌어졌다.

그때 마침 나서기 좋아하는 조합장이 매꼬지 상추를 세상에 알렸다. 신문, 방송할 것 없이 모조리 불러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정치적 욕심 때문에 매꼬지 상추를 이용했다고 분개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유명해서 망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 안 그러? 근본을 알아야 혀. 쪼금 팔리고 돈이 된당께 조합장이 나선 거. 정치 욕심이 있었지. 저를 내세워 우릴 죽인거.

- 그러, 그건 맞아. 그렇게만 안했어도 이게 그렇게 유명해져 씨앗 구할라고 난리를 쳤것남? 우리끼리 살살 팔아 먹었으면 오래 갔을 건디.

- 결국은 자랑하다 다 뺏긴 거. 누가 자랑해달라 했능가베. 자랑은 지들이 허고 뺏긴 건 우리 아닌 게벼? 왜들 지랄하고 방송이다, 신문이다, 들이대고 난리 친 거? 난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우리가 팔아먹지를 못했어? 값을 지대로 받지 못했어? 지가 왜 상관이나구.

- 맞아 그게 마을을 죽였지.

갑자기 세상에 매꼬지 상추가 알려지면서 이 상추를 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마을 사람들이 다급했다. 눈물겨운 씨앗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잘 됐다. 계획 생산했고, 종자를 받을 무렵이면 종자용 상추의 개수를 세어가며 공급 조절을 했고, 씨앗을 훔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돌아가면서 야간 경비를 서가며 씨앗 유출을 막았다. 그렇게 몇 해는 버텼다.

-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하우스에 재배하기 시작한 거.

- 88년도 수해는 대단했지. 다들 세도로 구경 가고 난리 뻘지. 그때 우리는 꼼짝하지 못했어. 상추 따느라고. 엄청났지. 부르는 게 값이여.

- 한 해 논 다섯 마지기를 샀어. 누구든 돈 빌리러 왔으면 좋겠능겨. 그 맛을 알어? 흐 흐

- 애들 학비도 다 매꼬지에서 나왔어.

모두 돈 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을에서 씨를 지켜야 한다는 것과 또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알 수가 있었다. 막을 수는 없었다. 씨앗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자루 주둥이를 막았지만, 밑에서 새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이들에게는 기회였는지 모른다. 상추를 따서 돈을 벌고, 수확이 끝나니 종자가 돈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기회였다. 회관에는 당시 몰래 팔아먹은 할머니도 함께 인터뷰해주셨다. 할머니의 멋쩍은 웃음과 함께

- 별 수 있남? 먹고는 살아야지, 상추씨가 돈이 된다는디 눈이 뒤집혔지. 마을 사람 한티는 지금도 미안허지. 근디 나만 그란 거는 아녀.

지금은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아마 누구나 그랬는지도 모른다.

- 그 뒤로는 끝났어. 씨는 퍼졌지.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끝났지.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 정이 떨어진 거지. 이자는 심어 먹지도 안혀. 종자 회사에서 무더기로 나오잔여. 그것 뿐인가? 인자 마트에 가서 사다 먹어. 기가 막힐 일이지.

- 용케 고것이 우리 마을에 들어앉아 팽생 우리 것이 될 줄 알았지. 남의 물건이 될 줄은 몰랐던 거”

그렇게 그들의 아쉬움 속에 인터뷰를 마치고 지나는 길에 물었다.

- 지금도 심고 있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다.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다. 한참이 흘렀다.

- 뭘 물어. 저 양반은 지금도 심어 먹으께 거기 가자고 허봐.

- 흐흐흐 나는 심고 있긴 허지.

김 선생이었다.

회관의 인터뷰가 끝나고 겨울을 나고 있는 상추를 보기 위해 김선생 댁의 뒤꼍에 갔다. 외양간을 짓고 남은 귀퉁이에 비닐이 덮여 있었고, 비닐을 걷자 아직 짝이 파란 상추가 얼굴을 내

밀었다. 매화꽃처럼 잎사귀를 바짝 벌리고 우리를 맞이했다. 한 평이나 될까? 그 유명했던 매꼬지 상추가 이제는 한 평 남짓한 땅에 연명하고 있었다.

- 이 마을이 왜 매화마을인지 알어? 이 마을에 들어오면 모두 매화를 담는다고 해서 그려. 상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매화잖여

이것이 마지막 남은 매꼬지 상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속상해서 버렸다. 지금은 상추를 마트에서 사다가 먹는다.

- 예구, 나라도 심어야지. 시작도 내가 했으께 끝도 내가 내야지. 시작도 여기였어. 달라진 것은 읍지. 아직은 아녀. 내가 살아 있잖여.

그것은 아쉬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샅을 찾더니 한 샅 번쩍 뜬다.

-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가지고 가봐, 죽을랑가는 운에 맏기고...

나는 이 상추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 하우스에 심어 놓고 고동이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꽃을 볼 수 있을까.

추신

그리고 봄이 왔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온 상추는 끝내 싹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죽었다. 겨울철에 뿌리를 건드려 상했던 것 같았다. 그런데 뜻밖의 편지가 한 통 왔다. 김 선생이었다. 죽었을겨. 아마.

그리고 한 조막만큼의 상추씨. 매꼬지 상추였다.